

COVID-19로 경험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계숙¹, 손환희^{2*}, 윤갑정³

¹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²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³대구한의대학교 휴먼상담복지학부

Schools and Educational Communities in Times of COVID-19: Experiences of Parents with Early Elementary Students

Kai-Sook Chung¹, Hwan-Hee Son^{2*}, Gab-Jung Yoon³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adeutan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Daegu Haany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코로나19로 경험한 학교와 공동체의 경험을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학교와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초점집단면담 자료를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자녀의 학교 교실의 모습을 알게 하다', '코로나19, 자녀의 인성교육을 다시 보게 하다', '코로나19, 학교-가정 파트너십을 진단하게 하다', '코로나19,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다'의 4개의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대범주별 하위 내용은 '자녀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게 됨',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보게 됨', '선생님의 고충을 공감하게 됨', '자녀의 인성교육, 공동체 경험의 요구 증가', '가정교육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자각', '학교와 가정, 더 벌어진 간극', '상호 소통의 환경과 공동체적 관계로 극복', '학교, 학습과 돌봄 공존의 장', '학교,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와 자녀학습 관련 경험, 학교-부모 간 관계 경험 및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chool and community experiences of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wice by enrolling eight mothers with early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residing in Busan. After repetitively reading and analyzing the focus group interviews data, four broad categories were defined as follows: 'COVID-19, getting to know the children's school classroom', 'COVID-19, letting to revisit children's character education', 'COVID-19, getting to diagnose school-family partnerships', and 'COVID-19, letting to re-think role of the school'. Further sub-categories included 'recognition of the child's learning attitude', 'figuring out teacher's teaching style', 'empathizing with the teacher's difficulties', 'increased demand for children's character education and community experience', 'awareness towards importance of family education and time together', 'wider gaps between school and family', 'overcoming hurdles via mutual communication and community relationships', 'school as a place for learning and caring coexistence', and 'school as a field of community edu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experience of parents regarding school and their child's learning, school-parents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future school education. We believe that results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for building an educational community focused on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Keywords : COVID-19, School, Educational Community, Early Elementary Students, Parents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2017S1A3A2067778)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wan-Hee Son(Pusan National Univ.)

email: heehouse@pusan.ac.kr

Received June 4, 2021

Revised June 23, 2021

Accept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교육, 문화, 소비, 일하는 방식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삶과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부는 안전과 방역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전례 없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교육을 시행하였고 학생, 부모, 교사들은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이 증가하는 '돌봄 공백' 문제로 맞벌이 가정이 '新 취약계층'으로 떠올랐으며[1],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와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학교의 역할과 본질의 재조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다양한 원격 학습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수업으로 배움의 공간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확장됨에 따라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사라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면서 갈등을 다루는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 생활습관 지도 등 인성과 전인교육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해왔던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담당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내는 학교의 돌봄과 교육 기능의 중요성이 재발견되고 있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그 사회의 공동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2].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교육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교육의 공동체성은 점점 취약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 위기 속에서 학교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 가정의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육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school)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스킨레(scholé)는 본래 어떤 종류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시간은 일종의 자유 시간으로서 생산이나 가정과 사회에서 규정된 직무로부터 분리된 시간을 의미한다[3]. 이에 대해 Arendt(1958)는 학교가 세상을 향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창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 즉, 학교는 어린 세대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

어 낼 수 있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자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소통과 돌봄의 가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만남, 축제, 공부, 놀이, 대화가 다섯 손가락처럼 활기차게 하나로 통합되는 장이어야 한다[5].

Sidorkin(1999)은 대화, 토론 등 다양한 의사소통은 인간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본질로, 학교는 인간의 상호관계성을 형성하는 소통의 존재론적 개념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6].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와의 부딪힘과 어울림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을 해보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맞닥뜨려 해결하는 경험을 가진다. 배우영(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나는 질문에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활동', '친구들과의 만남'과 '선생님과의 소통'이라고 답했다[7]. 학교는 학생들이 일정 시간 그저 머무는 곳을 넘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 등 교사와 친구 간에 활발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배우는 장이다. 유아기를 비롯한 아동기는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의 특성상 다양한 체험적 만남과 소통의 경험이 제한된 지식 위주의 교과에 기반한 온라인 수업의 맥락은 가정에서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져 교육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강영택(2017)과 심성보(2021)는 돌봄을 학교의 중요한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8]. 돌봄은 인간 존재의 심장이다[9]. 인간은 생존, 발달, 기능을 이루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며, 누구나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동은 돌봄이 없다면 생존하거나 기초 역량을 발달시킬 수 없다. 돌봄은 관계 속의 실천이자 행동으로 돌봄 관계는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연대의 시발점이다[2]. 돌봄 문제는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공적 가치로서 정의의 핵심 원칙이다[10]. 코로나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과 위험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안전과 역량을 동등하게 강화하고 돌보는 것은 공교육 본연의 역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배움의 전 과정에서 돌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돌봄은 배움의 전제이며 배움 그 자체이다. 배움의 목적은 스스로 돌보며 자립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서로를 돌보며 우정과 연대의 삶을 살아

가도록 돕는 데 있다. 구성원 간의 상호 관심과 신뢰, 사회적 연결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필수적인 주춧돌인 '함께 돌봄'이 없는 곳에서는 배움 또한 불가능하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놀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돌봄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2]. 돌봄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상호 관심, 그리고 연계성을 구축한다[12]. 아동이 학교생활을 통해 갖는 사회·정서적 유대감, 안정감, 공동체성 등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은 학교 돌봄을 통해 형성된다. 학교는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인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사와 협력해 아이들을 지원하는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이다[13].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의 학교는 소통과 돌봄의 가치를 구현하며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OECD 교육지표 2020'를 살펴보면, 아동의 인지 발달의 특성 상 원격수업 적응의 어려움과 돌봄과 학습의 공백 문제는 어릴수록 치명적이기 때문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교육 선진국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부터 등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대학 입시 준비를 고려하여 고3을 0순위로 등교수업을 재개하며 OECD 국가들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교육부, 2020). 어린 아동들은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 기간 내내 아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입시 위주의 한국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과 교육은 가정으로, 대체로 여성에게로 돌아갔으며, 엄마의 역할이 더욱 비대해졌다[14].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15-25]은 부모의 공동 자녀양육 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사회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기능하던 돌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돌봄의 가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주로 어머니가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제한적 등교와 보호자의 지원 없이는 수업 참여가 어려운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엄마표 개학'이라는 비판[26]이 나올 정도로 자녀의 학습 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의 방문자[27] 또는 후원자에서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한 주체로 인식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 위상과 학교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8-33].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침에 의존하여 움직여야 하는 특수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학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교육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앞서 설명한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에 취약한 어린 아동들인 초등학교 교육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4-36]. 이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에 대한 국내 학교 연구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현장교사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K-교육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에 관한 연구들[7,37-42]에 치중되는 반면, 정작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과 교육이 가정으로 이동되면서 과중한 책임을 맡게 된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학부모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과 그 본질적 의미를 들여다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UNESCO(2020)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학교의 대처방안과 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에서 학교 교육을 공공재로서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며 교육자 간 협업을 중시하는 등 교육에 있어 공동선을 강조하였다[43].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 공동선은 무엇인가? 불확실성의 위험을 안고 미래를 나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어떤 힘을 길러 줄 것이며,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건설하도록 교육할 것인지, 누구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합의하면서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이를 위해 불편한 감시자 또는 교사 발목을 잡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닌 자녀의 삶에 대해 교사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44-46].

재난의 파괴적인 힘은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영향력이 있다고[47] 볼 때 코로나19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위기이자 동시에 학교의 존재 가치를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변화에서 혼란에 취약하며 더 많은 학부모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와 공동체의 모습을 탐색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학교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며,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해보므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학교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코로나19 전후로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학교와 공동체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FGI(초점 집단 면담: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하는데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과 경험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학교 교육의 역할과 의미와 관련하여 미래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얻는 데 FGI 방식이 가장 유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GI는 특정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의 공유를 통한 집중적·심층적 대화에 기반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 자료로 하여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탐색하고 특정 현상에 대한 유의미한 이해를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이다

[48-51]. FGI는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코로나 19 전후로 경험하는 학교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개인 면담과 비교하여 비용은 적게 들면서 코로나19 전후에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학교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타당성 높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중 독서 토론 중심의 부모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본 연구의 목적과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총 8명의 어머니들로, 참여 어머니들에 대한 소개는 Table 1과 같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FGI 면담은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020년 2월 12일에 이루어진 1회기는 7명의 학부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시기였던 2020년 11월 16일에 이루어진 2회기에는 6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변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학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학기 이상의 회

Table 1. Participant

Age	Participant introduction	Participation	
		Session1	Session2
A 40세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최근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외국계 회사에 재취업하였음. 주거하는 아파트의 자녀 포레 어머니들을 모아 자녀들 품앗이 교육에 영어를 맡아 참여하고 있음	○	○
B 49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3학년 늦둥이 막내아들과 25세, 26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두 딸이 있음. 막내아들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
C 39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 외동 아들을 키우고 있음.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퇴사함. 스웨덴에서 1년 정도 살다 온 경험이 있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어머니 동아리 모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	○	○
D 40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3학년인 외동 아들을 키우고 있음.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녀와 함께 하는 워크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E 50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2학년 늦둥이 막내아들과 대학생과 직장인 두 딸이 있음	○	○
F 35세	동네에 캘리그래피 공방을 운영하며 학교에 자원봉사나 방과 후 강사로 참여하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외동딸을 키우고 있음. 장애아 보호 시설 등에 자원봉사를 다님.	○	○
G 35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음.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취미 활동을 즐겨함	○	×
H 40세	전업주부.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인 두 아들을 키우고 있음.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퇴사함. 학부모 씨앗동아리나 독서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며 현재 전문대 문헌정보학과에 재진학하여 도서관 사서 준비를 시작했음	○	×

기 간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였다. 또한 참여 학부모들이 비대면 FGI보다는 대면 FGI를 더 선호하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FGI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직결된 사회적 상황과 자녀들의 등교 일정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일정을 조정하였다. 장소는 P 대학의 강의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참여자별로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FGI 면담을 진행하였고, FGI 면담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였고, 인터뷰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FGI 면담 후,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FGI 면담 1회기 또는 2회기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포함하여 개별 추후 전화면담을 어머니별로 1~3회 실시하여 심화·보충하였다. FGI 면담은 회 당 2시간 40분~3시간 정도, 전화면담은 1회 당 20분 정도 소요하였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임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인식과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FGI 면담을 수행한 이후로 수시로 연구자2는 참여 어머니들과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근황, 궁금한 점 등을 나누며 후속 자료를 수집하였다.

FGI 면담의 진행은 연구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참여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각각 어떤 곳인가? 2)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로부터, 또는 담임교사 그 밖에 구성원들로부터 따뜻한 느낌을 경험하는가? 4)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자녀, 교사, 다른 학부모 등과 같은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는가? 5)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태도는 어떠한다고 생각하는가? 6)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7) 초등교육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8) 내 자녀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할 때의 고민과 선택은 어떠한가? 9)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8)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9) 그 변화를 학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코로나19를 겪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의 존재 여부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11) 학교를 변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더하여 연구자는 각 질문의 하위 질문들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거나 코로나 전과 후의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등의 추가 질문을 하였다. 하위 질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 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면담 과정에서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필요할 때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들 사이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좀 더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녹음 및 메모를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서에 근거하여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는 [52]이 제시한 귀납적 나선형 질적 자료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어구 등에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문장을 코딩 용지에 정리하며 면담 내용을 개방 코딩으로 유사한 주제끼리 범주화하였다. 코딩 과정 및 결과는 연구자들 간에 상호 점검하고 재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논의를 거쳐 구성된 의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자녀의 학교 교실의 모습을 알게 하다', '코로나19, 자녀의 인성교육을 다시 보게 하다', '코로나19, 학교-가정 파트너십을 진단하게 하다', '코로나19,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다'와 같은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범주별로 하위 의미 내용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핵심주제와 연결된 '자녀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게 됨',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보게 됨', '선생님의 고충을 공감하게 됨, 자녀의 인성교육', '공동체 경험의 요구 증가', '가정교육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자각', '학교와 가정, 더 벌어진 간극', '상호 소통의 환경과 공동체적 관계로 극복', '학교, 학습과 돌봄 공존의 장', '학교, 공동체 교육의 장'과 같은 9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주제군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해 면담 내용은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였으

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전공의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아동복지과 교수 1인 그리고 교육학 박사 1인이 범주적 합산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분석자들 간의 삼각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녹취된 자료를 약호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인 동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즉,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동료 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다.

3. 연구결과

3.1 코로나19, 자녀의 학교 교실의 모습을 알게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0년 4월 9일 고 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53].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으로 선생님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학부모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자녀의 학습 태도, 선생님의 교육방식과 고충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3.1.1 자녀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게 됨

어머니들은 원격수업 시간을 통하여 처음으로 학교에서의 자녀의 학습태도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학부모들에게 학습자로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원격수업할 때 저는 거의 악녀였는데, 제가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엄마가 몰랐을 뿐이구나 했어요. 학교에서 잘하러니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이게 현실이구나... 엄청 아이를 많이 혼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학부모C, 2020.11.16)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태도로 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중요한 건 수업이 건성건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학부모E, 2020.11.16)

우리 학교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학교 가는 횟수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 학교, 안 가는 학교 차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엄마들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경우 누가 어떻게 이 간격을 메워줄 건지...

(학부모B, 2020.11.16)

이처럼 어머니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자녀의 적나라한 학습 태도를 처음으로 보게 되면서 실망한 동시에, 가정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오히려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지원' 없이 원격수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 초기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두고 '엄마표 개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6].

3.1.2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보게 됨

어머니들은 자녀의 실시간 원격수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사의 수업 방식과 태도를 보게 되었고 어머니들 간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원격수업이 너무 신기하니까 친구들 안 보다가 막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은 “잠깐만, 조용히 해, 잠깐만 있어 봐”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아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리고...

(학부모B, 2020.11.16)

온라인 수업을 보면서 학교 교실 축소판을 완전히 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교육이 좀 갈 길이 있구나... 선생님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며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채팅했다가 꺼라 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부모 E, 2020.11.16)

아이들끼리 채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룹으로 나눠서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안 해 주니까 욕을 하고 난리가 났구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처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딱 한 번에 알아차려서 잘 대처를 하셨어요. 저희는 만족해요.

(학부모D, 2020.11.16)

특히, 교사의 원격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평소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한 어머니로, 다른 어머니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저는 학교에 재능기부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소통을 해보니, '내가 교사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학교가 작아서 가능한가 싶기도 해요.

(학부모E, 2020.2.12)

이처럼 어머니들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나 자연스럽게 자녀의 원격수업을 참관하게 되어, 평소에는 거의 볼 기회가 없어 궁금하였던 내 자녀를 맡은 담임교사의 수업방식을 보게 되면서 교사의 교수 능력에 대해 평가 하며 실망도 하고 안도를 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적절한 수업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 교사들도 원격수업으로 자신의 수업이 학생 이외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40].

3.1.3 선생님의 고충을 공감하게 됨

어머니들은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준비와 진행 등으로 겪고 있는 선생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고 선생님의 노력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내려온 지침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할 때는 그것도 짜면서 교사들이 할 일이 두 배로 늘어난 느낌 같은 것을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여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그랬어요.

(학부모C, 2020.11.16)

음악 선생님이 리코더 수업을 했다고 엄마들이 민원이 있고, 원격수업으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 혼자 뽀뽀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뭔가 애들한테 배움을 줘야 하는데 애들은 따라오지는 않지, 민원은 들어와서 왜 마스크를 벗고 불었냐고 그러지, 음악선생님 얼굴이 침울하더라고요.

(학부모B, 2020.11.16)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힘든 와중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해요. 저희 반은 처음부터 화상 수업이 잘 되었거든

요. 엄마들이 집에 없는 애들은 미리 학교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줌 수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학부모F, 2020.11.16)

선생님과 소통해보면 선생님들도 우울함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울컥하고 몽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선생님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우울감이 큰 거예요.

(학부모A, 2020.11.16)

코로나로 선생님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애들하고 지냈을 때 힘든 점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노력하시는지도 알게 된 점도 있어서 나름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학부모B, 2020.11.16)

선행연구에서는 원격수업 초기에 교사들은 수업 내용보다는 내용 전달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심적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40] 드러내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도 주었으나, 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이는 초유의 사태인 팬데믹 상황에 대한 염려와 극복에 대한 희망을 교사들과 공유하는 학부모들은 교사를 이해하게 되고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2 코로나19, 자녀의 인성교육을 다시 보게 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습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만남과 소통의 욕구는 증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교육과 공동체 경험은 더욱 중요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3.2.1 자녀의 인성교육, 공동체 경험의 요구 증가

어머니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친구와 소통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미래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2].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애들이 막 질문을 하려다 보니 선생님도 나름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들어려고 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구나. 아이들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려고 하다 보니.. 친구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을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E, 2020.11.16)

학교에서 배려하고 나누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기 힘들잖아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요즘같이 학교에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자 하나도 나눠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학부모A, 2020.11.16)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용품 하나 빌려 쓰지 못하네요. 부모도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애들끼리 사건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전화 와서 주의시켜 달라고 말씀하실 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언짢은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서 계속 있다가 애들이 흐트러져서 학교에 갔는데 적응할 시간을 안 주시고 바로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학부모B, 2020.11.16)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반대로 사람들은 더 만나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하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분명히 더불어 잘 살고 인성이 바른 아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을 믿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다 잘 키우고 싶어요.

(학부모C, 20. 11.16)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부모들이 말하는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즉, 포래와 일상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4].

3.2.2 가정교육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자각

어머니들은 코로나19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학

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없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오히려 가족 간에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가족의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살고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이유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좋은 인성이 필수가 아닌가 해요.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역지사지로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 어른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C, 2020.11.16)

학교도 못 가고 있었다가 최근에 학예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활동이 줄어들니까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기 힘들니까 가정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느냐가 과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A, 2020.11.16)

코로나 상황이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아이들도 학원에 뱅뱅이를 돌다 보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기회도 만들고, 아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가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저한테는 힘들지만 좋은 기회고 아이 정서에도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E, 2020.11.16)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너무 코로나 탓하면서 애들 학교 안 가나 탓만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족끼리 함께 해보는 즐거움을 새삼 느껴요. 코로나가 준 약간의 작은 변화인 것 같아요.

(학부모B, 2020.11.16)

이처럼 코로나19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3.3 코로나19, 학교-가정 파트너십을 진단하게 하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부모

들은 코로나 감염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학교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수업 일정을 챙겨야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 간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소통의 환경과 공동체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3.1 학교와 가정, 더 벌어진 간극

어머니들은 과거보다 현재 학교와 학부모와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학교가 아이를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엄마들과의 교류는 어느 정도 비슷한데 학교와 학부모 사이가 조금 더 배타적이 되었다고 할까요? 학교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를 문제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했는데 요즘은 학부모한테 토스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B, 2020.02.12)

아이가 이렇다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한 학기를 지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선생님이 내 아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느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딴 소리를 한다거나 선생님의 시선으로만 보는 선생님에게 부모는 불안감이 올라가요.

(학부모G, 2020.02.12)

교사와 학부모와의 넓어진 간극에는 어머니들의 불안감과 피해의식도 영향을 주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예전의 엄마들은 선생님을 믿었다면 요즘 엄마들은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조금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하는 생각... 선생님이 내 아이를 평가할 수 있고, 선생님께 잘못 보이면 아이 생활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선생님을 피하게 되는... 굳이 얼굴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도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학부모G, 2020.02.12)

선생님도 부모도 책임이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그 어떤 피드백 없이 ‘데려가세요, 해결하고 오세요.’ 하는 선생님. 가정에서도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하는 게 뭐예요?’ 해요. 갈수록 심해져요.

(학부모F, 2020.02.12)

어머니들은 학교와 가정 간의 더 커진 간극은 학교가 가정과 소통하고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어 있으며,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더욱 소통이 중요해졌음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학부모 행사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면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해요.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청소도 가고 급식도 하면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 가까워지는 환경이 차단되어 있어요. 각자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B, 2020.02.12)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외에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다가갈 수 있는 건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부모도 정보공개에 민감해요. 학교가 조금의 정보만 주다보니 다른 SNS에서 정보가 커지고, 학부모의 불안만 커져요. 왜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고 무기력하다고 할까요. 물론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학교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학부모G, 2020.02.12)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학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코로나19처럼 비상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학교는 부모와 거리를 두어 파트너십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학사 운영과정에서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시각[55]과, 학부모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라는 교사의 지적도 있었다[40].

3.3.2 상호 소통의 환경과 공동체적 관계로 극복

어머니들은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 결핍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가 동등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변화를 위해 먼

저 노력하지 않는 학교 조직문화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교육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데 공교육은 그런 게 없으니 불편함이 깔리는 거죠. 우리는 '을'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애를 맡긴 입장이라.. 늘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학부모B, 2020.02.12)

유치원은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학교는 규격화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안건이 새로 들어오면 시정하고 고민하고 결과가 나오게끔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를 차단시켜요. 통보식이고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학교 조직문화는 바꿀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 변하지는 않겠구나...

(학부모F, 2020.02.12)

교사와의 관계가 정서적이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제도와 시스템에 부딪히고 선생님들의 태도에서 회피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A, 2020.02.12)

이에 대해 부모가 먼저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 교사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학교의 견고한 벽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 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부모가 먼저 직접 다가가 본 적은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소통을 해보니 선생님들의 고충도 많더라고요. 열린 마인드로 한발 양보해서 소통을 자주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E, 2020.02.12)

E 학부모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 주연인이나 수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나누는 파트너로서 학부모의 주체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F학부모는 학교와 가정 간의 거리는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낮추고 학부모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좁힐 수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제도교육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다고 봐요. 그만큼 학교와 부모 간에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업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엄마들이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좀 더 투자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학부모F, 2020.02.12)

덧붙여, 교사와 학부모가 동등한 관계에서 공동체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의 자율성 회복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생님도 알아야 믿음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긴다고 봐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엄마는 과민해지고, 선생님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고, 그럼 더 부모는 분노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을공동체가 있었고 학교공동체도 부모가 서로를 알았어요. 저는 마을공동체나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학부모G, 2020.02.12)

선생님들도 자율성이 없어져서 유연성이 없어지다보니 당연히 소통이 더 막히는 것 같아요. 학부모와 선생님이 동등하게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서워서 책임이 전가될까 봐 덮어두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책임을 나누고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학부모A, 2020.02.12)

어머니들은 학교와 가정의 벌어진 간극은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교사와 학부모 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 학교의 변화하지 않는 조직문화, 교사의 자율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가정의 파트너십을 돌아보게 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 노력 방안을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을 의미하였다.

3.4 코로나19,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다

교육부(2021)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학습격차와 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일상의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코로나19로 학교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자녀의 학습과 돌봄의 기능이 모두 중요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언택트 시대에 자녀의 공동체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4.1 학교, 학습과 돌봄 공존의 장

어머니들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서 제공해왔던 학습의 기능이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으로 불균형적으로 쏠리게 되면서 학교의 존재 위기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교사들도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초학력의 저하와 중위권의 몰락을 체감한다고 하였다[40].

코로나로 일부 엄마들은 학교 아예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학교 필요 없다. 국어, 수학 전부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집으로 와서 가르치면 학교 뭐 하려고 보내느냐. 요즘 가정교사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없다고 하면서 지역별로 능력있는 과외선생님들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빈익빈 부익부처럼 계층이 생기겠다.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까지 오는 거예요.
(학부모E, 2020.11.16)

이에 따라 어머니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나 공교육에서 집중해야 할 게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수업이라고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격수업에서도 뒤쳐지는 아이들도 소통이 되어서 선생님도 이끌어나가고 아이들도 따라갈 수 있는.. 양극화는 갈수록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 학습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수업에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A, 2020.11.16)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밴드에 올리라고 하는데 올리는 사람은 올리고 안 올리는 사람은 안 올리고 항상

격차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안 하는 아이들은 너무 뒤쳐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신경을 쓰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에서 오는 문제도 큰 것 같기는 해요.

(학부모D, 2020.11.16)

또한, 어머니들은 학교가 제공한 돌봄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으로, 특히 엄마의 역할로 돌아오자 공적 가치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학교[2]의 의미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다.

저는 학교를 안 보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보육이었어요. 유치원은 보육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보육 기능만큼 안전한 게 없잖아요.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하고 점심도 먹고 왔는데 이제 제가 꼼짝을 못해요. 학교가 보육의 역할도 엄청났구나 학교의 보육의 기능이 크게 느껴졌어요.
(학부모C, 2020.11.16)

실제로 경상남도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6.6%로 나타났다(브릿지경제, 2020. 10. 29.). 반면 코로나19로 학교의 공백은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교육·학습'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돌봄'의 기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다소 역설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40].

3.4.2 학교, 공동체 교육의 장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 하면서 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다[2]. 어머니들은 코로나19로 오히려 학교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으며, 이는 특히, 자녀의 공동체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니까 격차가 벌어지면서 학교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학교가 물론 공부를 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 초등학교 때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예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지를 학습 과정에 넣어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A, 2020.11.16)

이번 위기가 공교육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

가를 알게 되었어요. 별 생각 없이 보냈던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들이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마 학교에 원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니까.

(학부모B, 2020. 11. 16)

저는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회 나가서는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나만 잘한다고 학급이 돌아가지 않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걸 배우려면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A, 2020.11.16)

앞으로 더 많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니까요. 사람들 만나고 소속되고 싶은 소속 욕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 친구 문제잖아요. 학교가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공식적 집단이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하죠.

(학부모C, 2020.11.16)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단순한 지식 전달과 학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또래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 목적 없는 놀이 공동체적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일단 부딪혀봐야 하잖아요.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C, 2020.11.16)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어떤 결과물 없이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결과물을 만들라고 하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 버려요. 어떤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아이들이 그냥 놀아도 된다고 해서 무얼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이견을 조율하면서 놀이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C, 2020.11.16)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학교에서는 인간성 회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로 장점이라면 주변을 좀 더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시선이 달라지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쓰레기, 환경 얘기를 하고. 단점은 인간관계가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해졌죠. 사람과의 소통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아쉬움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E, 2020.11.16)

시대가 가면서 의식이 변하는 건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을 배웠는가인데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육이 무의식중에 교육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라는 말보다는 '나', '너'로 될 것 같아요. 인간성 회복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E, 2020.11.16)

인간성 회복은 모든 존재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2]. 이러한 학부모들의 표현은 학교의 구실과 의미를 단지 학습 성취에만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계기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으로, 공존, 공익, 공생의 삶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찰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의 학부모들은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공동체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전적으로 코로나19는 학부모들에게 돌봄과 학습, 공동체 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해 겪게 된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FGI 형식의 집단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초등 저학년 학부모는 자녀의 형식적인 학교 교육 경험이 적어 자녀와 학교, 그리고 담임교사에 대해 많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특징이 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코로나19는 자녀들에게 만큼이나 큰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습상황을 자녀와 함께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문제에서부터 교사의 지도방식과 태도, 학교 교육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 속에서 생각을 다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교와 학습 관련 경험, 학교-부모 간 관계 경험 및 미래 교육 관련 경험 측면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학습 관련 경험이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학은 예기치 않게 초등 저학년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소극적 지원자에서부터 온라인수업의 시작 자체를 열어주는 적극적 지원자로 역할이 바뀌도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수업상황, 교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 인해 내 아이의 학습 태도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교실 전체의 학습 분위기, 특히 이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수업 방식을 적나라하게 지켜보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부산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3년 동안의 종단연구[56]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는데, 평가 첫해에 가장 높았고 마지막 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직·간접의 학교 관련 경험이 많아지면서 학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과 실제적인 학교 교육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몇 달간의 온라인수업을 통한 급격한 인식의 변화는 학부모에게 매우 좌절되는 경험일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유발하고 학교나 교사와의 협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인식은 아동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염려 및 적응, 나아가 모든 상급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듯이[57], 이러한 실망감은 학부모 자신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실을 들여다보게 된 결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늘어난 수업 준비 시간과 수업 중 학생과의 낯선 소통방법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름의 노력을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공감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경우에 학부모 스스로가 낯선 교육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겪었던 스트레

스와 공통분모를 이루었던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동병상련의 공감에 대한 해석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4가지 유형, 즉 자녀발달 근심형, 스트레스 가증형, 전화위복 준비형, 현실적응 만족형 등으로 나타난 결과[58]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과 학교를 중심으로 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부모 간 관계와 관련한 저학년 학부모의 경험은 한마디로 이전의 단절 경험이 더욱 심화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장철(2017)에 의하면, 교사-학부모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학교현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점 심화되어 간다고 하였다[59].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의 동반자적 관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단위 학교 자율경영체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체로 학부모의 위상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구체적 역할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60]. 본 연구의 참여 학부모들은 요즘 학부모는 교사가 자녀의 학교에서의 행동 문제해결을 가정의 책임으로 돌려 가정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인식하며 학부모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교사의 책임과 도움을 요구하여 서로 힘들다고 하였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받고 청소나 급식 지원 같은 기회도 없어져서 소통의 기회가 크게 차단됨으로써, 또한 학교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보를 충분히 공지하지 않아 다른 SNS상의 정보가 커짐으로써 학부모가 더욱 불안하게 되어 학교-부모 간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사-부모 간, 학교-부모 간 소통을 더욱 감소시켜 학교-부모 간 간극을 더 벌어지게 하였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을 위한 원격 발표와 대화 방법을 온라인수업 방식에 이미 익숙해진 학부모에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이해이다. 윤기영과 박상남(2000)은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는 학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관계이며, 학생의 발달과 교육적 성취가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 관심사로 종종 관계 맺는 주체의 특성은 간과된 채 맺어지게 되는 부분적인 관계라 하였다[61]. 교사와 부모 관계의 이러한 특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 상황 증가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의 특성에

대한 양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며, 이는 학기 초에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 간 간극의 기저에는 이미 굳어진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교와 학부모 간의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에 기반한 변화하지 않는 지시적인 조직문화, 그 조직문화를 살아가는 교사의 소통을 위한 자율성 부족,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도 슬선하여 교사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학부모의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은 지적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의 당위는 존재하나 기능 면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소통과 의무적인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은 오히려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불편한 감정과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은 학생의 과제수행 및 학급 활동의 적극성 신장[62] 등 교사-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마저 사장시킨다는 지적[32]을 두고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간극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교육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것처럼 친밀감과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과 교육의 동반자 역할 인정 등 공동체적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교사 차원의 개인적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련된 전문적 교육이나 지원이 부족하며[63-64], 학부모를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교사의 인식 문제[27] 및 돌봄 서비스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부모 역할까지 요구하며 지나치게 자기 자녀의 필요에 맞추기를 바라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반감[30]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학교 차원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 구현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인식하는 가장 주요한 교육공동체의 요인인 구성원 간의 관계적 돌봄, 즉 정서적 유대와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29]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하는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부모들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친구들과의 밀착된 접촉이 제한된 자녀들의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 역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표현만 하게 되는 아이들을 통해 소통과 정경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타인 배려와 갈등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친구들과의 밀착된 접촉과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학교 생활의 불가피한 제한이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또래와의 공동체 생활 강화가 그 해답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제한점을 가족 공동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학습을 지원하면서 가족의 일상을 되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 그러한 생각의 바탕이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이시효(2020) 역시 코로나19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65]. 이러한 또래와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은 일상적으로 아이의 학업성취에 매달려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며 인성교육보다는 학습문제에 더 치중해오던 학부모들 대다수에게 있어서 큰 인식의 전환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가 학교 교육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연구[40]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들은 코로나로 학교 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래 교육에 관한 생각을 다듬어보는 경험을 하였다. 현장 교사들이 온라인수업으로 학생 간 격차 심화, 기초학력 저하와 중하위권의 몰락을 체감하였듯이[40], 학부모들도 계층 간 사교육 불균형의 심화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학교의 존재 위기감까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학교를 위하여 원격수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직접 학습을 지도하면서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학교의 돌봄 기능의 큰 비중에 대해 발견하고 안전한 보육 장소로서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언급으로부터 학습과 보육이 공존하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가능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돌봄을 학교의 중요한 본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2, 8]과 달리 연구자[40]에 따라 학교가 교육·학습의 기능보다 돌봄 기능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점은 다소 역설적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 학부모들이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연계된 학교의 돌봄 기능은 더욱 크고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로 학교의 기능과 교사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나 비대면 수업 활용이 보편화 되는 시대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학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자녀의 공동체 교육이 필요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학생들도 그러한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모든 아이가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되었으므로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부도 중요하나 공동체 의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곳이 학교이므로,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를 소중히 하는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목적 없는 놀이 공동체적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게 하고 마을과 연계하는 등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본질 찾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전문가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적한 점[66]과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코로나의 장점이라면 주변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이라고 한 스스로들의 언급대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교육 방향에 대하여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은 학부모들의 확장된 사고가 교육현장의 변화에 실질적인 기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명목상의 교육 동반자였던 학부모[67]의 행위 주체성이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상황의 어려움 해결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의 방향으로 지적한 공동체 교육과 교육공동체로의 장기적 발전을 실천하는 길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중단되거나 간간히 이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며 그동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녀와 교실 내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가정과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 주체로서 교육의 동반자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판단되며, 이에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통, 관계 향상 및 교육 주체로서 동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학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공동체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학부모들의 경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초등 고학년 및 상급학교 학부모의 경험을 연구

함으로써 학년과 학교급에 따른 학교 교육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 학교가 학부모의 행위 주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onhap News Agency, "Childcare gap due to prolonged COVID-19 Half of dual-income couples are considering leaving the company."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57200063?input=1195m>, 2020.9.15.
- [2] S. B. Sim, "Corona Er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and Ecological Pedagogy", Sallimteo, Seoul, Korea, p.267, 2021.
- [3] Masschelein, J., In the age of COVID-19, do children miss school? Unexpected voice calling for school challenge. "The new normal in education: Future School Changes", 2020 Seoul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2020. 10. 29-10.30.
- [4]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5] Wehr, H. *Life-friendly alternatives for school development*. Meyer, G. & Johach, H. Erich Fromm heute. 2003.
- [6] A. M. Sidorkin, Beyond discourse: Education, the self, and Dialogue, p.164,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7] J. Y. Bae, "Thinking about the role of school education: Efforts of schools to resolve the educational gap", Imagining the New Normal in Education School Change in the Future, 2020 Seoul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On-line Youtube Live, Oct. 2020.
- [8] Y. T. Kang, school community that embraces the village, The mindeulle, , Seoul, Korea, 2017.
- [9] Engster, D.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7.
- [10] Kittay, E. F.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NY, USA, 1999.
- [11] Y. J. Jung, "Education is caring, education is caring", *Education of the day*, Vol.11 · 12, No.59, Education community, 2020. <https://communebut.com/Article/?idx=5532097&bmode=view>
- [12] Held, V. Ethics Of Care :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6.
- [13] 佐藤 學, Design education reform(教育改革をデザインする), The Gong-gam, Seoul, Korea, 2008.
- [14] J. K. Bae, "Proposals for Gender Equal Work and the

- 'Care New Deal',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Seminar Data*, 19-40, 2020.
- [15] Y. R. Kim, "Changes in families and policy challenges due to COVID-19", *KWDI Brief*, Vol.60, pp.1-7, 2020
- [16] S. Y. Park, J. L. Lee, "COVID-19 and Korean Family Life on Social Media: A Topic Mode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3, pp.228-300, 202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1.21.03.282>
- [17] Y. K. Lee, H. J. Lee, "Parenting Stress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Working M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6, No.1, pp.171-201, 2021.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21.26.1.9>
- [18] I. J. Jung, "International Responses to Child Care Problems Caused by COVID-19 and their Implications",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Vol.13, pp.47-59, Jun. 2020.
- [19] Y. K. Choi, "COVID-19 and the issue of child care", *Gender review*, Vol.7, pp.63-69, 2020.
- [20] E. H. Jang, H. Kim, COVID-19 and Gender Inequality: Focusing on Overseas Cases,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20.
- [21] G. H. Joo, "Family conflicts from COVID-19, gender equality within the family, and further communication", *Female Woori*, No.64, pp. 10-13, Oct. 2020.
- [22] M. J. Chin, M. A. Sung, S. H. Son, J. E. Yoo, "Changes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ceived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8, No.3, pp.447-461, Aug. 2020.
DOI: <http://dx.doi.org/10.6115/fer.2020.032>
- [23] D. L. Carlson, R. Petts, J. Pepin, US couples' divisions of housework and childcare during COVID-19 pandemic. p.47, University of Utah,
DOI: <https://doi.org/10.31235/osf.io/jy8fn>
- [24] J. Fegert, B. Vitiello, P. L. Plener, V. Clemens,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Vol. 14, pp.1-11, 2020.
DOI: <https://doi.org/10.1186/s13034-020-00329-3>
- [25] H. Prime, M. Wade, D. T. Browne,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Vol.75, No.5, pp.631-643, 2020.
DOI: <http://dx.doi.org/10.1037/amp0000660>
- [26] KBS. "Mom, please stay by my side: Online school starts for parent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8775>, 2020.4.20.
- [27] D. Miretzky, "The communication requirements of democratic schools: Parent-teacher perspectives on their relationships.", *Teachers College Record*, Vol.106, No.4, pp.814-851, Apr.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9620.2004.00359.x>
- [28] S. Y. Kim, M. J. Chin,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s' School-based Involvement: Do They Differ among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amily and Culture*, Vol.27, No.2, pp.27-60, 2015.
DOI: <http://dx.doi.org/10.21478/family.27.2.201506.002>
- [29] H. J. Kim, J. G. Lee, "Issues and Tasks of School Parent Participation for Realization of School Autonomy",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6, No.2, pp.1-22, Jul. 2019.
- [30] H. S. Park, D. Y. Lee,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onception of Educational Community i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o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8, pp.291-310,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8.291>
- [31] H. J. Shin, "Educational Community-Based Teacher-Parent Collaboration: Focused on Parent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7 No.3, pp.1-18, Jul. 2020.
- [32] K. Lee, I. S. Choi, H. S. Seo, 2nd year study to promote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Basic study of model development by type of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Parent Policy-Basic-2013-02). Parent Policy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33] K. S. Lee, "An Exploration of th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in Elementary School: From the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5, No.3, pp.69-92, Nov. 2018.
- [34] N. Brown, K. Te Riele, B. Shelley, J. Woodroffe, Learning at home during COVID-19: Effects on vulnerable young Australians. Peter Underwood Centre for Educational Attainment, 2020.
- [35] O. Doyle, COVID-19: Exacerba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p.10, Public Policy.IE.
- [36] Burke, J., & Dempsey, M., Covid-19 practice in primary schools in Ireland report. Maynooth, Ireland, 2020.
- [37] S. H. Park, H. K. Choi, "Voices of Elementary English Teachers on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9, No.4, pp.273-295, 2020.
DOI: <http://dx.doi.org/10.30974/kaice.2020.9.4.13>
- [38] H. S. Shin, H. S. Kim, H. J. Ahn, "Analysis of Paradox Phenomena in COVID-19 Policy : Focusing on teachers responses to Stone s fac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8 No.5, pp.1-28, 2020.

- DOI: <http://dx.doi.org/10.22553/keas.2020.38.5.1>
- [39] K. J. Lee, "A look back at school during the corona virus" *Education Review*, No.46, pp.132-146, Nov. 2020.
- [40] Y. S. Lee, B. C. Shin, Y. S. Jung, "A Study of the Paradoxes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9, No.1, pp.131-165, 2021.
DOI: <http://dx.doi.org/10.30916/KERA.59.1.131>
- [41] S. Y. Kim, "A Case Study on the Design of Blended Learning in Primary Schoo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33, No.4, pp.109-138, 2020.
DOI: <http://dx.doi.org/10.29096/JEE.33.4.05>
- [42] S. K. Choi, M. J. Choi, "Focus Group Interview(FGI) Study on 'K-Edu' Experienced by School Teachers In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2, pp.179-189, Feb. 2021.
DOI: <http://dx.doi.org/10.21184/ikeja.2021.2.15.2.179>
- [43] UNESCO, Education in a post-COVID world: Nine ideas for public action. UNESCO, Paris, France, 2020
- [44] H. H. Son, J. H. Noh, "Early Childhood Teachers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and Actions for Building an Educational Community on Implemen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7, pp.721-737,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7.721>
- [45] J. J. Son, "Comfortable Supporter or Uncomfortable Surveillant: Emotional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Par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9, No.3, pp.33-57, 2012.
DOI: <http://dx.doi.org/10.22804/ike.2012.39.3.002>
- [46] H. H. Son, K. S. Chung, S. H. Park, "Exploring the Underlying Factors for Building a School Community: Focused on the innovative school teachers' interviews",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9, No.4, pp.699-718, 2020.
DOI: <http://dx.doi.org/10.15812/ter.59.4.202012.699>
- [47] R. B. Solnit, *The Forgotten Lobby: Advocates for India in the U.S. During World War II*, p.34, Dickinson College Honors Theses, 2012.
- [48] J. M. Lee, Hye Rim, Han "Exploration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dult Attachment Measures: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Adult Attachment Research Exper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6, No.1, pp.123-143, 2021.
DOI: <http://dx.doi.org/10.21321/ifr.26.1.123>
- [49]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2: Methods", Academy Press, Paju, Korea, 2013.
- [50] S. H. Lee, T. M. Yoo, "Intervie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on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0 No.3, pp. 107-129, 2008
- [51] Morgan, D. L.,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Puchta, Sage, London, UK, 1997.
- [52]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Designs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Sage, CA, USA, 2007.
- [53] Ministry of Education, "Online school starts for the first time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special new semesters",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0160> 2020.3.31.
- [54] S. Bhamani, A. Z. Makhdoom, V. Bharuchi, N. Ali, S. Kaleem, D. Ahmed, "Home learning in times of COVID: Experiences of par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Vol.7, No.1, pp.9-26, 2020.
DOI: <http://dx.doi.org/10.22555/joeeed.v7i1.3260>
- [55] M. H. Park, Y. J. Jung, COVID-19 and Education: Implications for School Autonom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uwon, Korea, 2020.
- [56] D. B. Ju, W. S. Lee, H. C. Lee, K. S. Li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Reduction Policy: Focusing on Middle? High School Student in Busa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2, No.1, pp. 69-90, 2018.
DOI: <http://dx.doi.org/10.18398/kilgas.2018.32.1.69>
- [57] C. B. Kim, K. S. Lee, S. S. La, "A Study of the Parent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or First Grader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2, No.6, pp.403-429, Dec. 2007.
- [58] H. N. Joo, "A Study on the Types of Awareness of Infant Mother's Raising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Q Method Approach",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7, No.4, pp.23-48, Oct. 2020.
- [59] J. C. Kim, A study on the mutual perception and strategy for the teacher-parent conflict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7.
- [60] H. S. Shin, "Innovating Educational Governance Conforming to School Autonom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19, No.1, pp.181-211, 2010.
- [61] K. Y. Yoon, S. N. Park, "Human Relation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5, pp.379-404, 2001.
- [62] M. A. Kraft, S. M. Dougherty, "The effect of teacher-family communication on student engagement: Evidence from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Journal of Research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Vol.6, No.3, pp.199-222, Jul. 2013.
DOI: <https://doi.org/10.1080/19345747.2012.743636>

- [63] S. Graham-Clay, "Communicating with Parents: Strategies for Teachers.", *Community Journal*, Vol.15, No.1, pp.117-129, 2005.
- [64] B. C. Thompson, J. P. Mazer, E. F. Grady, "The changing nature of parent-teacher communication: Mode selection in the smartphone era.", *Communication Education*, Vol. 64, No.2, pp.187-207, 2015.
DOI: <https://doi.org/10.1080/03634523.2015.1014382>
- [65] S. H. Lee, "The Impact of COVID-19 on Elementary Education at Three Schools in Bucheon City, Korea", *Space & Environment*, Vol.30, No.4, pp.172-207, 2020.
DOI: <http://dx.doi.org/10.19097/kaser.2020.30.4.172>
- [66] Y. H. Lee, J. H. Yoon, B. B. Baek, E. B. Lee,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Refor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Educational Policy Mak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7, No.4, pp.75-103, 2019.
DOI: <http://dx.doi.org/10.18230/tjye.2019.27.4.75>
- [67] S. Auerbach, *School leadership for authentic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Research perspectives for transforming practice*: p.280, Routledge, London:, UK, 2012.

정 계 숙(Kai-Sook Chung)

[정회원]



- 1979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이학석사)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이학박사)
- 1982년 3월 ~ 2019년 8월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부모교육, 교육공동체

손 환 희(Hwan-Hee Son)

[정회원]



- 2009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SSK) 연구교수

<관심분야>

교사교육, 교육공동체

윤 갑 정(Gab-Jung Yoon)

[정회원]



- 2002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미국 Wisconsin-Madison대학교 C&I post doc.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휴먼상담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다문화교육, 교육공동체